

인천공항 안가도... 여행지 선택 폭 넓어졌다

항공사, 인천·김해공항 포화에 광주·전남에 잇단 취항 김포·양양·일본·베트남·필리핀·대만 등 노선 급증

에어필립을 비롯한 국내 저가항공사가 이 광주와 무안공항에 잇달아 취항에 나서면서 해외여행 등 지역의 항공인프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항공사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에 따르면 해당 항공사는 10일부터 매주 금·토·일 하루 1회 무안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을 오가는 부정기 노선을 왕복 운항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무안공항과 일본 오사카,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을 잇는 3개 노선을 연달아 취항했고, 지난 7월 27일에는 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추가로 운영 중이다.

또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항공사 '에어필립(대표이사 회장 엄일석)'은 지난 6월 30일 광주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노선을 매일 2회 운항을 시작하는 등 최근 광주·전남 지역민을 모시기 위한 국내 저가항공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처럼 저가항공업계가 광주·전남에 눈

독을 들이는 이유는 정기노선이 부족한 지역 공항에 국제·국내노선을 확대해 항공인프라를 갖추면 충분한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제주항공이 김해국제공항에 태국 방콕 노선을 취항한 뒤 국제노선을 11개까지 늘리자 후발 항공사들도 앞다투어 국제선 신규노선 개발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 운항편수도 2011년 1만361편에서 지난해 2만8576편으로 175.8%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2013년부터 광주·양양노선을 주 3회 운항하다가 2015년 중단했던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무안·양양을 잇는 '하늘길'을 다시 연 것도 비슷한 이유다. 초창기 이용객은 많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이 확충돼 무안공항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노선 이용객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어필립

이미 '포화상태'인 인천·김해·제주공항에 신규 취항을 노리는 것보다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사업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여기에 각 항공사들도 지역 항공시장의 빠른 '연착륙'을 위해 지역민을 겨냥한 이벤트와 신규 노선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광주·전남의 항공인프라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에어필립은 광주~인천, 무안~인천 노선과 김해, 울산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항공기 2·3호기를 추가로 도입해 무안에서 일본·중국

·대만·동남아 등 운항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제주항공도 무안공항의 국제노선이 첫 달 79%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하반기 동계시즌 국제선 다변화를 위한 추가노선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다양한 신규 노선이 생기면서 그동안 열악한 항공편으로 불편을 겪었던 지역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KTX와 SRT 등 다른 교통편과 연계돼 호남권 여객수요뿐 아니라 충청권 등 타지역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3.71 (+2.26)	▼ 금리(국고채 3년) 2.05 (-0.02)
▲ 코스닥 789.48 (+5.67)	▼ 환율(USD) 1117.20 (-2.70)

광주·전남 스타기업 5년간 75개 발굴

광주테크노파크 지원

광주테크노파크(TP)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5년간 지역 스타기업 75개를 발굴하고 이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컨설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TP는 지난 8월 '2018년 지역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15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지원 프로그램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스타기업이란 광주시가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우수한 기업이다. 최근 3년 매출액 50억~400억원,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3년 평균 연

구개발(R&D) 투자율 1%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15개 스타기업에는 에어클리너를 생산하는 라도, LED 조명장치가 주력생산품인 유진테크노, 자동차시트 제조업체인 씨엠텍, 에어컨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그린테크,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업체인 인셀 등이 포함됐다.

광주TP는 올해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인력(Project Manager)을 기업별로 지정, 성장·투자전략과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는 등 컨설팅을 계획 중이다. TP는 향후 3년간 연 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이들 스타기업들 중 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 2년 간 최대 8억원의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롯데마트 신선식품 할인 판매

롯데마트 상무·첨단·수완·월드컵점

광주지역 롯데마트가 물가안정을 위한 신선식품 특별 할인행사에 나선다.

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광주지역 4개 점(상무·첨단·수완·월드컵점)은 생물대구, 포도, 제주산 돼지고기 등 신선식품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이날부터 22일까지 국산 생물 대구(700g 내외) 1마리를 4800원에 판매하며, 국산 생물 대구 왕특대(2kg 내외) 1마리는 1만4800원에 판매한다.

최근 수온 상승으로 대구의 먹잇감이 연근해에 증가한 점과 치어방류사업으로 어획량이 증가, 충남 보령 등 서해 포구의 산지 중매인과 직접 거래해 가격을

낮췄다는 게 롯데마트 측의 설명이다.

또 포도 유명산지인 김천·경산 거봉(2kg 1박스)과 경산 청포도(1.5kg 1박스)를 각각 1만1900원에 선보인다.

여름마지막 휴가객을 위해 캠핑용 신선식품으로 제주산 돼지 앞다리(100g)를 1290원, 뒷다리(100g)는 890원에 판매한다. 삼겹살(100g)은 2490원이다.

손질한 홍새우는 마리당 650원, 국산 생물 횡다리 새우(100g)는 2980원에 판매하며, 바나나(1.2kg)도 2900원에 선보일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세계 주요기업 '톱5' 5년 연속 선정

삼성전자가 전세계 주요 기업들 가운데 혁신 노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톱5' 명단에 5년 연속으로 포함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브랜드 키즈'(Brand Keys)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가장 혁신적인 기술 브랜드'(2018 Most Innovative Tech

Brands)'에서 삼성전자는 5위에 랭크됐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으로 5위 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최근 5년간 '톱 5'에 한 번이라도 포함된 기업은 미국 아마존, 애플,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HBO, 마이크로소프트(MS)와 삼성전자 등 8개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온라인 수출관 패키지사업 14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9일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온라인 상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온라인수출관 패키지사업' 참여기업을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로 중소벤처기업의 상품페이지를 제작하고, 국내 최대 B2B 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에 등록해 해외바이어 구매오피(인콰이어리)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트남, 러시아 등 총 9개 다국어 중 1개와 영어 1개를 선택해 제작할 수 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기업과 수출 첫걸음 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기업은 '온라인구매오피 사후관리 사업'에 자동 선정돼 해외바이어 구매오피에 대한 유효 검증과 수출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에 따른 기업 부담금은 무료이며 참여 희망 기업은 14일까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1588-6234)로 문의하면 된다.



"마음은 벌써 가을"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화장품 브랜드 '맥' 매장에서 고객이 가을 신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맥은 가을시즌을 앞두고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BMW 탃?... 현대차 디젤차량 단종

그랜저·쏘나타·i30·맥스크루즈... 경유차 부정 인식 반영

현대차가 그랜저와 쏘나타, i30, 맥스크루즈 등 4개 차종의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한다. 저조한 판매실적에 BMW 차량 화재로 경유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9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회사측은 오는 10일 이후 그랜저와 쏘나타 등 4개 차종의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물량만 판매할 계획이다.

그랜저와 쏘나타 디젤 모델의 경우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 2% 수준이다.

i30와 맥스크루즈는 전체적인 판매량이 적어 더 이상 비용을 들여 디젤 모델의 생산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 모델은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판매가 부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 66주년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6834-7400